

# 신문기사의 난민 키워드 변화 경향 연구

## - ‘빅카인즈’ 신문기사 제목 활용-

이경민

(부산외국어대학교)

### 《목 차》

1. 들어가기
2. 빅카인즈를 통한 ‘난민’ 기사 분석
  - 2.1. 1990년 이후 난민기사 검색 결과
  - 2.2. 국내 난민법 제정 이전 난민기사 현황
  - 2.3. 국내 난민법 제정 이후 난민기사 현황
  - 2.4. 2018년 난민기사 현황
3. 분석결과
4. 결론 및 시사점

#### <Abstract>

Lee Kyung Min. 2019. 1. 22. **A Study on the Changing Trends of Refugee Keywords in Newspaper - Using Big Cain's Newspaper Title**,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3, 99-114. In this study, we looked at how the key words in newspaper articles changed the perception of refugees. The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refugees before and after the situation in Jeju Island in 2018 was evident in keywords. From 1990 to 2017, refugee keywords appeared as Western European-centric keywords such as Europe and Africa. However, it was found that it moved to South Korea's center such as

South Korea and Jeju Island after 2018. In this study, a fragmentary keyword analysis presented in the title of the article considered changes in refugee awareness. Therefore, no analysis has been made on whether or not refugee-related keywords have a positive or negative impact on recognition. However, studies have shown that key words in newspaper articles affect refugee awareness.(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ey words] Refugee Recognition, Korean Refugees, Newspaper  
Keywords

## 1. 들어가기

전 세계 인구의 약 3%의 사람들은 국경을 넘어 낯선 곳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국경을 넘어 이주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이주자 자신의 선택에 의한 이주라는 것이며 두 번째는 주변 환경에 의해 강제에 의한 것이다. 자신의 선택에 의한 이주는 삶의 질의 상승과 더불어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감을 함께 가지고 이주하지만, 강제 이주의 경우는 불안과 공포를 가진 채 새로운 환경에 내닫게 된다. 학자들은 첫 번째 이주의 대상자를 보통 이민자라 부르고 두 번째 경우를 난민이라 달리 부르고 있다.

최근 난민 문제는 ‘난민 논쟁’이라 불릴 만큼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난민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면 배척할 것인가로 고민한다. 이 고민은 최근 난민 보호국이었던 북미, 유럽, 호주 등의 국가에서 정치적 딜레마로 등장하고 있다. 난민 논쟁은 국민들이 난민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한 번 받아주기 시작하면 집단으로 몰려올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수용국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이주가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 관심을 기울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었다.<sup>1)</sup>

2018년 6월 한국은 ‘난민’ 이라는 두 글자에 대한 딜레마에 빠져있었다. 딜레마는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의미로 사용되며 두 개의 판단 사이에 끼어 어느 쪽도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의미한다.<sup>2)</sup> 한국도 다른 난민 보호국들처럼 난민 수용에 대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의 수용이나 자국민 보호의 관점에서 난민을 외면하느냐의 문제에 놓여있었던 것이다.

베츠와 콜리어는 난민 위기의 원인을 국가의 취약성으로 보았다.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이주민과는 달리 난민은 박해, 폭력 등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강제적으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며, 난민의 원인을 대규모 폭력이라고 정의하였다.<sup>3)</sup>

베츠와 콜리어의 주장과 같이 난민의 문제는 개인의 자발적 선택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국가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의해 난민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난민으로 볼 것인가도 딜레마이다.

최근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난민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국이민재단에서 발행한 이민법에서 난민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었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상주국’)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난민법 제2조 제1호). 이는 종래

---

1) 김현미,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 한국에서 이주자로 살아가기, 돌베개, 2014

2) 임석진 외, 철학사전, 중원문화

3) 이병하, “난민 위기의 원인과 해결책 그리고 환대의 윤리”, 국제정치논총 제57집 4호, 199-236, 2017(pp. 206)

난민협약상 난민의 정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개념을 규정화한 것이다.”

위와 같이 한국 이민법에서 난민은 경제적 난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난민에 대한 신문기사의 수가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신문기사 수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신문기사는 사회의 이슈를 나타내며 중요한 사건일수록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분석방법은 뉴스 기사의 제목에 나타난 키워드를 분석한다. 기사의 제목만 분석대상으로 선정하는 이유는 제목은 기사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전달하고 의제를 설정하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신문의 관점과 태도를 유추 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며 기사의 함축적 의미는 기사 제목에서도 표출되기 때문이다. (김수정, 조은희, 2005; de Vreese, 2004)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이 된 자료의 수집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기사 데이터베이스 빅카인즈([www.bigkinds.or.kr](http://www.bigkinds.or.kr))를 통해 추출하였다. 빅카인즈 서비스의 특징은 비정형 텍스트로 구성된 뉴스 콘텐츠를 정형화된 데이터로 바꾸어 사회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sup>4)</sup>

분석대상을 헤드라인(표제 및 부제)과 리드로 한정하였다. 헤드라인은 해당하는 기사의 내용을 집약적으로 나타내어 논점을 부각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독자들의 주목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수용자는 뉴스 보도를 소비하게 된다고 보았다(이준웅, 2000).

빅카인즈 분석시 형태소 분석방식을 활용할 때 정확한 결과를 나타낸다는 메뉴얼의 안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형태소 분석 방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기사의 제목에 분석범위를 한정하여 진행하였다. 연관어 분석에서는 검색한 키워드와 관련된 키워드를 워드클라우드<sup>5)</sup>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워드클라우드 형태에서 글자

---

4) 빅카인즈([www.bigkinds.or.kr](http://www.bigkinds.or.kr)). 한국언론진흥재단

의 크기는 많이 등장하는 글자의 빈도수로 가중치를 계산하여 표현하고 있었다.

프레임 분석의 궁극적 목적에 대해 최송술(2016)은 사회적·정치적으로 논쟁이 되는 이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수단으로서 프레임 분석이 작동한다고 보았다. 프레임 내용에 대한 이해는 담론 형성자, 수용자와 정보 교류 및 교환을 통해 논쟁 이슈에 대한 생각을 명확하게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문기사에 나타나는 난민기사 수의 변화와 시기별 키워드 분석을 통하여 사회 논쟁이 되고 있는 난민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통해 신문의 기사가 독자의 난민에 대한 관심정도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독자들이 난민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 2. 빅카인즈를 통한 ‘난민’ 기사 분석

### 2.1. 1990년 이후 난민 기사 검색 결과

빅카인즈의 신문기사는 1990년부터 데이터화 되어있었다. 따라서 데이터화가 시작된 1990년부터 2018년까지 난민을 제목에 포함한 기사를 모두 추출하였다. 이 기간 빅카인즈가 제공하는 기사의 수는 총 14,711건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중앙지를 기준으로 난민 기사를 추출하였다. 중앙지 기사수를 선택한 이유는 중앙지의 특성상 전국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한국사회의 난민에 대한 관심을 단편적으로나마 들여다 볼 수 있다고 보았다. 추출 대상 언론사는 빅

---

5) 문서 내에서 핵심 단어를 추출하여 문서의 특징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기법으로 각 개체는 뉴스 내에서 많이 언급될수록 크게 나타나며 개체 이름을 클릭하면 관계도 차트에서 해당하는 개체가 선택된다.

카인즈에서 분석 가능한 중앙지(경향, 국민, 내일, 동아, 문화, 서울, 세계, 중앙, 조선, 한겨레, 한국) 11개의 신문사이다. 그 결과 중앙지 총 기사 건수는 7,519건이며 중복되거나 제외 되는 기사 416건을 제외하고 7,103건으로 나타났다.

< 표 1 1990년 이후 난민기사 검색 결과 >

년도	전체 기사수	중복·제외	중앙지 기사수
1990	41	-	37
1991	143	-	131
1992	80	-	73
1993	93	-	84
1994	228	-	194
1995	159	-	132
1996	214	-	147
1997	200	-	136
1998	51	-	36
1999	302	-	171
2000	179	-	106
2001	402	-	207
2002	277	-	168
2003	222	-	130
2004	83	-	48
2005	106	-	70
2006	150	1	89
2007	171	1	106
2008	202	6	108
2009	197	3	101
2010	593	9	329
2011	453	3	216
2012	429	5	194
2013	483	8	171
2014	515	14	190
2015	2833	191	1153

2016	1942	34	764
2017	1145	55	475
2018	2818	86	1337
합계	14,711	416	7,103

위의 표에서 같이 중앙지 기사수를 살펴보기 전에 빅카인즈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체 언론사의 난민 관련 기사수를 먼저 분석하였다. 1990년이후 29년간 난민관련 기사수는 14,711건으로 나타났다. 10년을 단위로 분석하면 1990년대 1,511건, 2000년대 1,989건, 2010년대 11,211건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대는 9년동안의 자료임을 감안하더라도 기사수가 급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2015년에 2,833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8년 2,818건으로 그다음을 이루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약 400~500건의 기사수에 비해 2015년은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지 기사수를 살펴보면 1990년이후 29년동안 총 7,103건으로 나타났으며 1990년대 1,041건, 2000년대 1,133건, 2010년대 4,829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사수 대비 비율을 분석해 보면 1990년대는 약68%, 2000년대는 약56%, 2010년대는 약43%로 중앙지의 기사수 비중은 줄어들고 있음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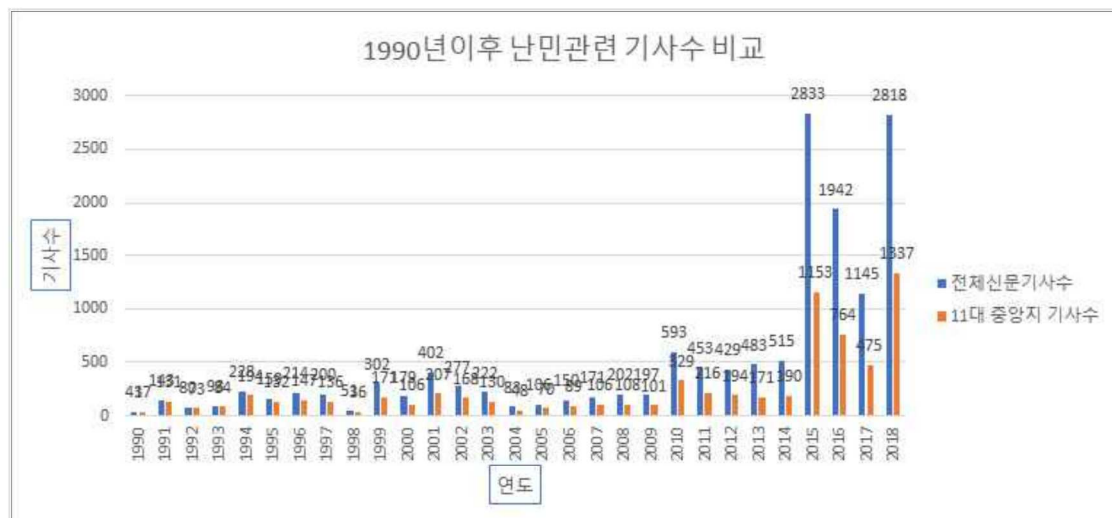
29년동안 기사수에서 2015년 이후 기사수가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전체 기사수와 중앙지 기사수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이는 2015년 사회적 관심을 급등시키는 난민관련 이슈가 등장했음을 기사수 분석으로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난민관련 기사수가 가장 많이 나타난 년도는 전체는 2015년도로 2,833건이며, 중앙지 기사수는 2018년도로 1,337건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2015년과 2018년의 이슈 비교를 통해 난민관련 기사수의 급등의 원인을 분석하여 난민에 대한 관심의 차이를 찾을 수 있으리

라 예상되었다.

전체 난민기사수 분석을 통하여 세부분석 기준을 제시하면 먼저 2012년 국내 난민법 제정 시일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의 난민기사의 키워드를 분석하였다. 2012년을 기준으로 정한 이유는 난민관련 법이 아시아 최초로 제정 되었고 기사화 되었을 때 주로 어떤 키워드로 구성되었는지 비교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2012년 이후에 난민기사 수가 급등하고 있는 2015년과 2018년이 모두 포함되므로 두 시기를 구분하여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난민 키워드와 2018년 난민 키워드를 따로 분석하여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2018년을 따로 구분한 이유는 한국 사회에 난민 상황으로 인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이전과 다른 점을 찾기 위함이었다.



< 그림 1 199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난민기사 분포 현황 >

위 그림은 1990년 이후 난민 관련 기사수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된 그래프로 2014년까지 2010년과 2014년을 제외하고 500건 미만의 기사수를 보인 것에서 2015년 5배 이상 급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사회적 관심이 기사수의 확장을 이루었으리라 분석할 수 있었다.

## 2.2. 국내 난민법 제정 이전 난민기사 현황



< 그림 2 2011년까지 난민기사 키워드 분석 결과 >

위 그림에서와 같이 2011년까지 난민기사 키워드는 UNHCR(유엔 난민기구)가 가장 중심이었다. 법무부와 탈북자 우리나라와 같은 키워드가 같이 등장하긴 하지만 대부분 국외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르완다, 중국, 알바니아, 이라크, 아프리카 등의 나라로 키워드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난민관련 인식이 국내의 상황이라기 보다는 국외의 상황으로, 직접 대면한 문제라기 보다는 간접적으로 난민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겠다.

## 2.3. 국내 난민법 제정 이후 난민기사 현황



< 그림 3 2012년 이후부터 2017년까지 난민기사 키워드 분석 결과 >

위 그림에서와 같이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시점인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난민 키워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한국에서 난민법이 만들어진 이후 상황이지만 한국 내 난민 상황에 대한 기사보다 국제사회의 난민에 대한 이슈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특히 유럽,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나라들이 주로 나타나고 있어 이 시기의 키워드는 난민발생국보다는 난민유입국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2015년도 난민기사가 급증한 이유를 기사내용 검색을 통해 살펴보면 겨울 바닷가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던 어린 쿠르디의 모습이 전 세계 언론을 통해 기사화 되면서 난민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볼 수 있겠다.

#### 2.4. 2018년 난민기사 현황



< 그림 4 2018년 난민기사 키워드 분석결과 >

위 그림에서와 같이 2018년 난민기사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과거 28년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주제가 나타나고 있었다. 2017년까지의 난민기사 키워드는 유럽과 중앙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난민발생국과 난민유입국과 관련된 키워드가 나타났다. 하지만 2018년의 난민키워드는 제주도, 외국인청, 법무부, 예멘인들, 우리나라 등 국내 키워드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는 난민에 대한 관심이 국외에서 국내로 이동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다.

### 3. 분석결과

본 연구는 신문기사에서 난민기사 수의 변화를 분석하여 한국 사람들이 난민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었으며 어떤 키워드로 인식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1990년부터 가장 최근인 2018년 분석 기간으로 기사 제목에 난민을 포함하는 경우만 분석하였다. 분석 기간 중에서 2015년 이전에 비해 2015년 이후 기사 건수가 급증하였다. 이는 2015년 시리아의 전쟁으로 인해 난민이 대거 발생하였으며, 전쟁으로 인한 난민의 발생은 국제사회의 고민거리로 떠오르게 되었다.<sup>6)</sup>

한국 사회가 난민에 대해 관심을 급증하게 된 계기는 첫 번째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대규모 난민이 발생한 유럽의 상황을 언론을 통해 지켜보면서 일 것이며, 두 번째가 제주도 예멘 난민 입국이라 볼 수 있겠다. 이는 2018년 이전까지 난민기사에서 키워드는 유럽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반면 2018년 이후 난민기사에서 키워드는 제주도와 예멘, 법무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 국내 사정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난민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식이나 관심이 유럽사회의 난민에서 한국사회의 난민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었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 2017년 11월에 발표한 ‘난민법에 대한 입법적 사후평가’의 내용에 난민과 난민법에 대한 국민 인식 설문조사<sup>7)</sup>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위 설문조사는 가장 최근 난민과 난민법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로 2018년 6월 제주 예멘 난민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의 국민 인식과 관련된 것으로 본 연구에 제시하고자

6) “시리아 난민에서 예멘폭격까지”, 한겨레신문(2015.12.25.)

7) 설문대상(전국 만 19세 ~ 69세 성인남녀), 설문대상자 명수(1000명, 성·연령·지역에 따른 인구비례할당), 조사방법(구조화된 웹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오차율±3.10%, 조사시간 5일.

한다. 조사내용은 ‘난민에 관한 인식’, ‘난민정책에 대한 인식’, ‘난민 수용에 대한 인식’의 세 영역으로 구분되었으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난민 인식 조사에서 난민의 용어는 국민 85.1%(잘 알고 있음 + 알고 있음)이 인지하고 있지만 난민의 상황에 대해서는 36.5%(잘 알고 있음 + 알고 있음)만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난민이라는 용어 자체는 여러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익숙하게 들어왔지만, 난민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적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82.7%의 국민들이 난민은 이민과는 다른 특별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었다. 난민 수용의 긍정적인 효과는 국제인권법 준수국가로의 발전(36.3%), 난민이 자국으로 귀국 후 갖게 되는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과 인상이 다음이었으며, 난민 수용의 부정적인 효과는 범죄 발생 등 치안 문제 및 테러 등의 우려(56.8%)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난민 수용에 대한 인식으로는 난민 인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75.2%, 특히, 여성(82.1%) 60대 이상(80.9%)로 높게 나타났다.

난민 인식 조사에서는 난민은 이민과는 다른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체적으로 국민의 상당수가 동의를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난민 인정에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과 동시에 수용 가능한 난민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이라는 점에서 국민 인식은 대체로 난민 수용을 받아 들이는 입장이라 분석하고 있다.<sup>8)</sup>

2017년에 조사한 인식조사 결과에서는 난민에 대한 인식이 수용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 2017년까지 난민에 대한 키워드는 유럽과 서구 사회 중심의 일로 우리나라 상황에 밀접한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난민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한 것으로 빠른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언론을 통한 노출에 의해서

---

8) 난민법에 관한 사후적 입법 평가(2017.11.15.), 한국법제연구원 난민과 난민법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결과

라고 본 것이다.

#### 4. 결론 및 시사점

한국 사회는 2017년 말 기준 국민의 약 4%가 이주민인 다문화사회가 되었다. 일반 국민들이 다문화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 중에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난민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주목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다문화 인식은 다문화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다문화 배경의 이주민과 직접 경험을 통해 다문화 인식을 길러 나가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으며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다문화 인식을 확장시켜 나가게 된다. 본 연구는 인식을 형성하는 여러 요소 중의 하나로 언론 또는 매체가 주는 정보라고 예상하였다. 그 중 신문기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수용함으로써 직접 경험이 없는 국민들이 다문화와 난민등에 관한 인식을 형성해 나간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신문기사의 난민에 대한 기사수 분석을 통해 국민의 난민에 대한 관심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신문기사에서 등장하는 키워드의 변화는 난민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는 예측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빅카인즈 검색을 통해 신문기사에 난민이라는 글자가 포함된 기사의 내용이 난민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으냐와 없느냐는 밝히기 어려웠다. 다만 시대적 이슈와 난민 관련 기사의 내용이 기사 제목에 대표되고 있음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사의 제목을 통해 1차적으로 기사를 접하는 국민들은 난민에 대해 인식을 정하고 있을 것이며 이는 기사의 제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난민에 대한 인식의 방향을 결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난민에 관한 인식을 신문기사에 나타나는 키워드 변화를 통해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분석 도구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빅카인즈’ 서비스를 사용하였다. 신문기사를 키

워드 분석에 한해 진행한 결과 기사가 취하고 있는 긍정적 입장과 부정적 입장에 대한 태도는 알 수 없었다는 점에서 한계점으로 남는다.

결론적으로 난민의 관한 키워드는 1990년대 이후 꾸준히 등장하였다. 하지만 한국과 직접적 관련 기사보다는 유럽과 서방사회의 난민에 관한 소식을 전해듣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 시행함에 있어서도 난민 관련 키워드의 변화는 두드러지지 않고 있어 법의 등장이 관심밖에 있음을 나타낸다고 본다. 가장 최근 난민과 관련하여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된 제주 예멘 난민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이전과 이후의 키워드가 유럽과 관련된 키워드에서 한국 내 상황을 대변해 주는 키워드로 변경됨에 있어 난민의 상황이 타국의 문제에서 자국의 문제로 이동해 왔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신문기사가 여론을 형성하고 대변하는 입장을 취하거나 또는 여론을 선동할 목적을 갖는다고 한다면 신문기사에 나타난 난민기사 수의 증가나 유럽 중심의 키워드 분포에서 한국 내 상황의 키워드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 사회가 난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난민에 대한 분야가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선행 연구에서 살펴보면 한국언론은 이주민을 부정적·비극적·폐쇄적 인물로 그리거나(김경희, 2009) 건강이 좋지 않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며 하층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이재승, 박영숙, 2013). 김소형, 이건호(2015)에 따르면 포털보다는 이용자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뉴스를 더 선호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미디어와 통신의 발달로 매체의 정보를 단순 수용하는 것을 넘어 SNS를 통해 재생산하고 있는 유통자로서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신문과 같은 매체는 국민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화두가 된 난민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 연구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첫째, 신문기사가 여론을 형성하는데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것은 앞선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으므로 신문 기사를 작성할 때 여론의 입장을 대변하기 보다는 여론 형성이 올바르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분석적이고 사실적인 접근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둘째, 앞으로 난민 인식 관련 연구자들은 매체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 수용자가 어떤 태도와 인식을 통해 수용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불과 8개월여 사이에 난민에 관한 인식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었다. 현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은 자신의 생각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부정적 인식의 확산은 되돌리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본다.

정보가 일방통행 이던 시대는 지나갔다. 신문이나 뉴스의 기사를 수용만 하던 수용자에서 자신의 의견과 관심에 따라 재생산 배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수의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체는 타인과 타문화에 대한 올바른 판단 기준이 되는 인식이 바르게 정립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변화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볼 수 있겠다.

## 참고문헌

- 김경희(2009). 텔레비전 뉴스 내러티브에 나타난 재한 이주민의 특성: 뉴스초점이주민과 주변인물(한국인·이주민)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3권 3호, 한국방송학회. 7쪽~46쪽.
- 김소영·이건호(2015). 바람직하지 않은 뉴스 전달자, 더 바람직하지 않은 뉴스 수용자: 18대 대통령 선거 보도에 대한 포털과 수용자의 주목도 비교, <한국언론학보> 59권 2호, 한국언론학회. 62쪽~87쪽.
- 김수정·조은희(2005). 생명과학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뉴스 프레임 비교연구, <한국언론학보> 49권 6호, 한국언론학회. 109쪽~139쪽.

- 김현미(2014).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 한국에서 이주자로 살아가기, 돌베개.
- 임석진 외(2012). 철학사전, 중원문화.
- 이병하(2017). 난민 위기의 원인과 해결책 그리고 환대의 윤리, <국제정치논총> 57권 4호, 한국국제정치학회. 199쪽~236쪽.
- 이준웅(2000). 프레임, 해석,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효과.<언론과 사회> 29호, 성곡언론문화재단. 85쪽~152쪽.
- 이재승·박경숙(2013). 지역 텔레비전의 다문화 관련 뉴스 프레임 분석: KBS 제주, 제주 MBC, JIBS, KCTV, JEJU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3권 1호, 한국지역언론학회. 326쪽~358쪽.
- 이철우 외(2017). 이민법, 한국이민재단.
- 최송술(2016). 프레임 분석 방법론의 모색에 관한 연구, <공정책연구> 32권 2호,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133쪽~154쪽.
- 최윤정·권상희(2014). 빅데이터 관련 신문기사의 의미연결망 분석,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1권 1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41쪽~286쪽.
- 최유·권채리(2017). 난민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 평가,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언론진흥재단(2018). 빅카인즈 사용자 매뉴얼  
“시리아 난민에서 예멘폭격까지”, 한겨레신문(2015.12.25.)

#### 필자소개

성 명 : 이경민  
 소 속 :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전자우편 : [komini78@naver.com](mailto:komini78@naver.com)

투고일: 2019. 1. 22 / 심사일: 2019. 2. 6 / 심사완료일: 2019. 2. 18